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8

▶ 39회 예고
포로로 잡혀 있는 꼬삼비의 우데나왕은 아반띠국의 와술라닷따 공주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 드디어 우데나왕은 와술라닷따를 데리고 아반띠국을 탈출한다. 앙가국 꼬삼비로 돌아온 우데나왕과 와술라닷따는 결혼식을 올린다.



짠다빳조따왕, 우데나왕을 생포하다

담마팔 사문이 특사 일행을 따라서 빠딸리뿌뜨라로 떠나기 이틀 전 밤이었다. 아쇼까는 담마팔 사문의 인품에 이끌리어 그를 궁궐로 초대했다. 담마팔 사문은 특사 일행이 묵는 시프라강 언덕의 별궁에 머물고 있었다. 아쇼까는 경비조장에게 접견실 창문을 활짝 열도록 지시했다. 창문을 열자, 시프라강 쪽에서 강바람이 창턱을 넘어왔다. 뿐만 아니라 초저녁에 뜬 초승달이 보였다. 기다리던 담마팔 사문이 경비대장의 안내를 받아 접견실로 들어왔다. 아쇼까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맞이했다.

"사문이여, 어서 오시오."

"소승을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빠딸리뿌뜨라로 가시면 언제 또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부른 것입니다."

"소승이 왕자님들을 가르칠 만한 사람인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짠다빳조따왕이 깟짜나 사문을 만나기 전에는 어리석고 욕심이 많은 왕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소?"

담마팔 사문도 웃으며 말했다.

"부왕이시여, 그 이야기는 웃자인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붓다께서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만 웃자인에 전해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궁녀들이 망고와 포도, 바나나가 놓인 접시들을 들고 들어왔다. 아쇼까 앞에는 포도주가 든 황금주전자가, 담마팔 사문 앞에는 코코아 음료가 든 은주전자가 놓였다. 아쇼까가 말했다.

"어린 시절 나의 스승 중에는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이 있었소. 참으로 자비로운 스승이었소. 그런데 담마팔 사문은 목갈리뿟다띳사 스승의 모습과 너무 닮았소. 모습뿐만 아니라 말투 등도 비슷해요."

"사문은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왕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목갈리뿟다띳사 사문과 저와는 분명 어떤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사문이여, 이제 짠다빳조따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소?"

담마팔 사문은 아쇼까의 청을 받고는 곧장 짠다빳조따왕 이야기를 시작했다.

"짠다빳조따왕이 깟짜나 사문을 만나 불교에 귀의하기 전이었습니다. 난폭한 왕은 욕심이 많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짠다빳조따왕은 거칠고 안하무인이었다. 그의 성격 탓에 딸 와술라닷따를 꼬삼비 우데나왕에게 빼앗겼다. 아버지 짠다빳조따왕의 말이라면 죽은 시늉까지 하던 와술라닷따가 용맹하고 코끼리를 잘 다루던 우데나왕의 두 번째 왕비가 되었던 것이다.

짠다빳조따왕은 자신이야말로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짠다빳조따왕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이건 왕들이 착각하는 오만이었다. 하루는 짠다빳조따왕이 측근신하들에게 물었다.

"나와 같이 부귀와 영광을 갖추고 있는 왕이 또 있는가?"

깟짜나의 아버지인 늙은 궁중제관이 말했다.

"폐하보다 부귀를 누리시고 있는 왕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웃나라 꼬삼비 우데나왕에게는 폐하께서 누리시지 못한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오?"

"붓다께서 꼬삼비에 2년이나 머무르셨다는 영광입니다."

"그거라면 나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소. 특사를 보내 붓다를 모셔오면 되지 않겠소. 당장 누구를 특사로 보낼 것인지 상의해 보시오."

그러나 특사를 자원하는 신하는 없었다. 붓다가 계시는 꼬살라국 수도 스라바스티까지는 너무나 먼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할 수 없이 늙은 궁중제관은 자신의 젊은 아들을 추천했다. 그가 바로 얼마 전에 궁중제관이 된 깟짜나였다.

앙가국은 아반띠국과 인접한 나라였고, 일찍이 불교를 받아들여 수도 꼬삼비에는 크고 작은 절들이 제법 많았으며 성민들은 대부분 불교신자들이었다. 붓다가 2년 동안 머무르며 설법했던 영향이었다. 짠다빳조따왕이 양미간을 찌푸렸다.

"특사를 보내기 전에 확인할 일이 있소."

"폐하 무엇입니까?"

"우데나왕을 붙잡아 오시오. 우데나왕을 내 눈으로 봐야만 그의 영광이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을 것이오."

"폐하, 우데나왕을 붙잡아오기는 불가능합니다."

"안된다고 말하지 말고 묘책을 강구해 보시오!"

짠다빳조따왕이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측근신하들이 당황해하면서 웅성거렸다. 이윽고 한 신하가 말했다.

"우데나왕은 코끼리에 미친 왕이지요."

우데나왕을 평하는 대신의 말에 한 신하가 맞장구를 쳤다.

"우데나왕이 코끼리 사냥을 나가서 주문을 외거나 삼현금을 연주하면 코끼리들이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마음대로 부리어 잡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데나왕은 코끼리 사냥을 잘하여 수십 마리의 건강한 코끼리를 보유한 왕이었다. 코끼리를 사육하는 군사를 따로 두었는데, 전담신하는 코끼리가 많아질수록 몇 수레씩 잡풀을 먹어치우는 코끼리들 때문에 날마다 곤욕을 치렀다. 그래도 우데나왕은 코끼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다. 어딘가에는 더 영리하고 힘세고 날랜 코끼리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신하들 중에서 코끼리 사육사 출신의 신하가 꾀를 냈다.

"저에게 묘책이 있습니다. 나무로 코끼리상을 만들어 우데나왕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냥을 올 만한 곳에 놓아두고 소문내면 됩니다."

코끼리 사육사 출신의 신하는 코끼리를 조각하는 방법과 묘책을 설명했다. 나무 코끼리 안을 몇 명의 군사가 들어갈 만큼 크게 파고, 묘책이란 나무 코끼리 네 발에 바퀴를 달아 우데나왕이 나타나면 재빨리 도망치는 척하다가 사로잡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기발한 묘책이오."

"왕을 부릅시다."

신하들에게 불려나온 짠다빳조따왕은 코끼리 사육사 출신의 묘책을 듣더니 만족해했다.

"좋소. 당장 나무 코끼리를 만들어 보시오."

며칠 만에 아반띠국의 일급 목수들이 웃자인으로 다 모여들었다. 목수들이 통나무를 자르고 붙여서 코끼리상을 만들었다. 그런 뒤 흰색 안료를 칠하고 흰 천을 둘둘 말았다. 나무로 만든 흰 코끼리는 앙가국과 아반띠국 국경 사이에 있는 호숫가로 옮겨졌다. 아반띠국 군사들은 나무 코끼리 주위와 호숫가의 길바닥에 일부러 진짜 코끼리 똥을 가져다놓았다.

이윽고 앙가국 꼬삼비의 나무꾼이 코끼리 똥과 흰 코끼리를 발견하고는 우데나왕 신하에게 알렸다.

"우리 폐하께서 좋아하실 만한 코끼리를 보았습니다."

"어디 있던가?"

"국경 부근 호숫가에 있습니다."

신하가 나무꾼을 우데나왕에게 데리고 가서 보고했다.

"폐하, 이 나무꾼이 국경 부근 호숫가에서 폐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흰 코끼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데나왕이 물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천천히 말해보아라."

"폐하, 산처럼 크고 아름다운 코끼리였습니다. 히말라야 만년설처럼 흰 코끼리였습니다. 코끼리를 보신다면 폐하께서 아주 만족하실 것입니다."

"당장 흰 코끼리를 사로잡고 싶구나. 네가 길잡이를 하겠느냐?"

"예,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코끼리를 탄 우데나왕은 나무꾼을 앞세우고 꼬삼비 성을 나섰다. 호위군사 몇 명이 우데나왕을 뒤따랐다. 호위군사를 몇 명만 데리고 나선 것은 코끼리 사냥을 많이 해본 우데나왕의 자신감 때문이었다. 우데나왕은 나무꾼을 따라서 국경 지방에 있는 호숫가에 이르렀다.

한편, 웃자인의 첨병들은 우데나왕 일행을 발견하고는 곧장 짠다빳조따왕에게 보고했다. 우데나왕이 지나갈 길 양쪽 숲속에는 짠다빳조따왕의 군사가 매복하고 있었다. 우데나왕이 나무로 된 흰 코끼리를 보고는 주문을 외었다. 그러나 우데나왕의 주문은 통하지 않았다. 나무 코끼리는 앙가국 국경을 넘어 아반띠국으로 달렸다. 우데나왕은 나무 코끼리를 추격했다. 호위군사들도 나무 코끼리가 달리는 방향으로 쫓아갔다. 그때였다. 매복해 있던 짠다빳조따왕의 군사들이 달려오는 우데나왕의 호위군사들을 활을 쏘며 순식간에 제압했다. 짠다빳조따왕이 소리쳤다.

"우데나왕을 생포하라!"

나무 코끼리 뱃속에서 짠다빳조따왕의 군사가 나와 우데나왕을 포위했다. 그제야 우데나왕은 계책에 걸려든 것을 알고 짠다빳조따왕에게 항복했다.

"코끼리에 눈이 멀어 속았소."

"그대의 영광도 별 것 아니군. 나의 나무 코끼리에게 속는 것을 보니 말이오!"

"허나 속임수로는 나를 영원히 이길 수는 없을 것이오."

우데나왕이 항변하자 짠다빳조따왕이 소리쳤다.

"그대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아시오!"

"붓다께서 내게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었소. 나에게 영광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오."

짠다빳조따왕은 우데나왕의 태연한 태도에 내심 놀랐지만 그러한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우데나왕을 경멸하듯 말했다.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그런 영광이라면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말겠소."

짠다빳조따왕은 우두머리 전옥관리에게 우데나왕을 즉시 감옥에 가두라고 지시했다. 그런 뒤 앙가국 왕을 사로잡은 기념으로 아반띠국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축제를 허락했다. 특별히 웃자인 성민들에게는 술과 음식을 하사했다. 축제 3일째 되는 날이었다. 감옥에 갇힌 우데나왕이 전옥관리에게 물었다.

"전옥관리여, 그대의 왕은 어디에 있소?"

"적국의 왕을 붙잡았으니 기쁘지 않겠소? 술을 마시며 기뻐하고 계실 것이오. 오늘이 축제 마지막 날이오."

우데나왕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왕은 왜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는가? 적국의 왕을 사로잡았으면 놓아주던지 죽이던지 해야지, 기껏 굴욕이나 주면서 술이나 마시고 있단 말인가?"

다음날 전옥관리는 짠다빳조따왕에게 보고했다.

"폐하, 우데나왕이 자신을 놓아주던지 죽이던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음, 확인을 해봐야겠군."

짠다빳조따왕이 감옥으로 가서 우데나왕에게 직접 물었다.

"그대가 놓아주던지 죽이던지 해달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이오?"

"그렇소."

우데나왕이 목숨을 포기한 듯 담담하게 말하자, 짠다빳조따왕은 갑자기 살려주고 싶은 연민의 정이 생겼다. 그러나 우데나왕을 그냥 풀어줄 수는 없었다. 살려주는 대신 조건을 하나 달았다. 그래야 신하들도 이해할 수 있을 터였다.

"좋소. 풀어주겠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대가 코끼리 부리는 주문을 알고 있다는데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겠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나에게도 조건이 있소. 스승에 대한 예의로 나에게 삼배를 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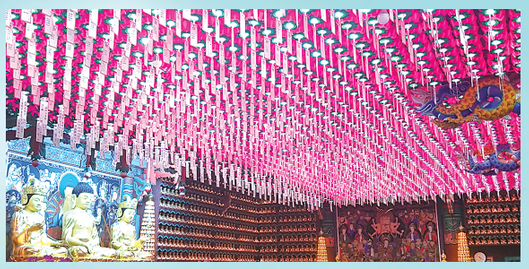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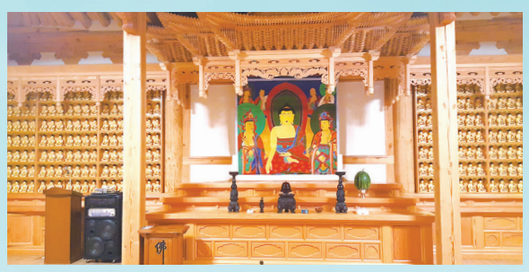
"하하하. 삼배는 붓다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오?"

짠다빳조따왕은 어이가 없어 크게 소리 내어 웃고 말았다. 옆에 있던 전옥관리가 주먹을 휘두르기라도 할 듯 씩씩거리며 다가섰다. 그러자 짠다빳조따왕이 만류했다.〈계속〉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